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백) 설(하느님의 말씀 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백)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3. 1. 22.)

* 오늘 전례

오늘은 음력 1월 1일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니다.

또한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봉헌하는 날로 선언하셨습니다(2019년 9월 30일). 우리 모두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여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민수기 6,22-27):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24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25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26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27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제2독서(야고보서 4,13-15):

사랑하는 여러분,

13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14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15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 복음(루카 12,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

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
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
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
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
하나이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구원의 힘을 얻은
교회가,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이
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겨
레에게 일치의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이 밝은 이 해에 남
북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최선을 다한 그들이 하
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살피시어, 힘 없이
발전하는 물질문명과 급변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도 지역
의 고유성을 지키며 살기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소
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친교의 제사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올해도 저희가 주님의 보호로 모든 해악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당 : 416 (좋기도 좋을시고)

봉헌 :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220 (생활한 재물)
성체 : 436 (주 날개 밑) 116 (주 예수 바라보라)
파견 : 423 (천년도 당신 눈에는)

공지 사항

♣ 설날 행사 안내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특별히 하느님 말
씀 주일을 함께 맞이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한 해
를 살아갈 말씀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 이대로 레오 신부님(대구 대교구 가톨릭 신문사 기획
주간) 환영합니다.

♣ 성당 오른 쪽 대문 Passo Carrabile(파란색 대문) 앞
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그 주변도 원활한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와 연결된 문은 늘 닫도록 합니다.

♣ 주일 미사에 학생들이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대 앞 왼쪽 좌석(주일학생 지정석)에 학생들을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 구분 : 제대초 봉헌 & 개인초 신청
- 초 축복 예식 일자 : 1/29(주일)
- 제대초 봉헌 & 개인초 : 15유로 이전과 동일)
- 개인용 : 10유로 (제대용 사이즈의 약 1/2)
- 신청 마감 및 입금 : 1/22(주일)
- 접수 : 1월 22일까지 접수 및 비용 취합하셔서 변
부회장님께 전달.

♣ 모임 및 회합

- 2구역 구역모임
시간 : 1월 28일 (토) 16:00
장소 : Via Amatore Sciesa 24/a Citofono ma' ry'
ya

♣ 봉사자

| | 오늘 주일(22일) | 다음 주일(29일) |
|--------|-------------------------|------------------------|
| 제1독서 | 이승원 비오 | 강한 프란체스코 |
| 제2독서 | 권혜림 세레나 | 박수정 클라라 |
| 복사 | 이준서 마르티노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 박동현 요한보스코 / 강윤이 스텔라 |
| 계단·화장실 | 이승원 비오 | 강한 프란체스코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9.6 • 교무금 € 800.-